



생태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적 상호의존 관계와 제2외국어 교육

Das kulturelle interdependente Verhältnis und die zweite Fremdsprache in
Anlehnung an ökologischem Diskurs

저자 송용구
(Authors) Song Yong Ku

출처 카프카연구 16, 2006.12, 119-142 (24 pages)
(Source) [Franz Kafka 16](#), 2006.12, 119-142 (24 pages)

발행처 [한국카프카학회](#)
(Publisher) Koreanische Kafka 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65821>

APA Style 송용구 (2006). 생태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적 상호의존 관계와 제2외국어 교육. 카프카연구, 16, 119-142.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3.31
2016/04/05 17: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생태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적 상호의존 관계와 제2외국어 교육*

송 용 구 (고려대)

I. 들어가는 말

문화적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문화 간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제2외국어 교육 담론을 생산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문화 간의 대등한 교류, 소통, 상생(相生)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태주의’ 관점을 통해 문화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이 각 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제조건임을 밝힘으로써 문화의 균형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영어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고, 다양한 제2외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계화’의 진행 과정 중에 나타나고 있는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 교육이 문화 수용의 획일성과 편협성을 조장한다는 것을 ‘생태주의’ 관점을 통해 논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본 논문은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문화 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기초하여 이 시대의 지배담론인 영어중심주의론을 비판하는 일종의 대항담론이다. 문화적 지배 현상과 영어 일변도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생태주의’ 관점에서 비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M0054).

판적으로 진단해보고, ‘문화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언어교육 담론이기도 하다. ‘생태주의’는 이 담론의 논리적 근거를 형성한다. ‘생태주의’는 각 지역문화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문화 간의 대등한 상호작용, ‘상호의존’,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생태주의’에서 파생된 ‘사회생태주의’의 패러다임을 통하여 제2외국어 교육이 쇠퇴하고 있는 사회적 원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2외국어 교육의 쇠퇴가 문화의 다양한 수용 통로를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력의 저하 및 각 지역문화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의 문화적 현실과 관련하여 문화적 공존과 상생이 우리 문화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해보고, 문화 간의 진정한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2외국어 교육이 갖는 문화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개별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교육의 역할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제2외국어 교육의 문화적 생산성과 사회적 효과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문화적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 관계

‘생태주의’ 패러다임 혹은 ‘생태 담론’¹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과 함께 사회를 형성해나가는 파트너이자 공생(共生)의 동반자이다. 생태주의자들은 자연을 인간보다 하위에 두고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성만능주의 또는 인간우월주의를 배격한다.² ‘이성’이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갖지 못한 자연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생태주의’의 입장이다. 인간에

1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서울 1999, 35-36쪽.

문순홍은 ‘패러다임’이라는 개념보다는 ‘담론’이라는 개념이 ‘생태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 ‘담론’이란 개념은 ‘패러다임’ 또는 ‘정상 과학’이란 개념보다 생태적으로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담론은 ‘사용중인 언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식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성을 말한다. 그래서 ‘담론’이란 개념은 상호 작용하고 공명하는 맥락을 전제로 한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2 Vgl. 구승희, 『에코필로소피』, 새길, 서울 1995, 1-12쪽.

게 물질적 자양분과 정서적 평안을 안겨주는 것은 자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 능력, 역할이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의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써 마땅히 자연의 생식능력과 자정능력을 보호해주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이성적 판단이다. 이성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상생(相生)을 모색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 나아가야 할 제3의 길이라는 것이다. 즉, 자연과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고 양자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차등의식을 극복할 때, 서로의 결핍을 보완하는 ‘상호의존’의 관계로 접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³

‘생태주의’는 생태계의 자연법칙과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생태계의 자연법칙은 약육강식 혹은 적자생존의 법칙과 공생(共生) 혹은 상생(相生)의 법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의 종(種)과 다른 종(種)이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생명을 보존해나가는 상생의 법칙을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의존 관계로 전용(轉用)하자는 이성적(理性的) 요청이 ‘생태주의’이다. ‘생태주의’는 이성적 판단과 성찰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한 철학인 것이다.⁴

생태학은 ‘특정 유기체와 주변 환경 간의 연관을 연구하는 학문’⁵으로서 ‘물, 공기, 흙과 동식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⁶ 분야이다. 생태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종(種) 또는 하나의 생물이 유기체이듯이 한 지역의 문화도 정신적 유기체이다. 생태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사회에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 발생적인 산물이다. 지구상의 생물들이 유기적 연관관계를 이루어 생명의 네트워크인 생태계를 형성하듯이, 지구상의 각 지역문화들도 유기적 연관관계를 이루어 정신적 네트워크인 문화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문화의 생태계 안에서 한 지역의 문화는 다른 지역문화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공존하고 있다. 한 지역문화권의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인식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때, 양쪽 문화는 동등한 수평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 수평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 문화의 장점과 정신적 가치를 수용하여 자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문화의 장점과 가치를 전

3 Vgl. 송용구, 『현대시와 생태주의』, 새미, 서울 2002, 25쪽.

4 Vgl.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칙』, 이진우 옮김, 서광사, 서울 1994, 33-50쪽.

5 송용구, 『생태시와 저항의식』, 다운샘, 서울 2001, 24쪽.

6 같은 책, 24쪽.

해줌으로써 상대방 문화의 결핍을 보완해주는 문화적 상호의존의 시스템을 형성해야만 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 각 지역의 문화들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이 자국의 문화를 앞세워 타지역의 문화 또는 주변문화를 지배하려는 일종의 ‘문화제국주의’⁷적 패러다임이 문화 간의 상호의존 시스템을 파괴하여 정신적 생태계의 평형을 깨뜨리게 된다. 화학물질의 독성이 스며들어 강물이 오염되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물고기의 등이 굽어지며, 임신한 산모가 ‘무뇌아’를 낳는⁸ 이러한 파괴적 도미노 현상은 문화의 네트워크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문화적 생태계 안에서 거대문화의 지배력으로 인하여 주변의 지역문화들이 연쇄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문화파괴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인 T. S. 엘리엇은 문화를 유기체로 인식하고 문화들 간의 관계를 유기체적 연관관계로 파악하는 생태주의적 문화론을 제시하였다.⁹ 그는 대등한 위치에서 전개되는 ‘문화’ 간의 상호 영향 관계가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열쇠임을 시사하였다.¹⁰ 엘리엇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문화 간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그의 신념을 보여준다.

나는 문학을 그것이 세계 문학이든, 유럽 문학이든, 한 나라의 문학이든 간에 개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유기적인 전체로서, 개별적인 예술 작품들과 개인 예술가의 작품들이 그 유기적인 전체와의 관계를 이룰 때, 바로 그 유기적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체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유럽 문화의 건강함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즉 각 나라의 문화는 고유해야 한다는 것과 서로 다른 문화들은 상호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각자 다른 문화로부터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유럽 문화의 공통성, 사고와 느낌과 행위 간의 상관적인 역사, 예술과 사상의 상호 교류 때문에 가능해집니다.¹¹

7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박홍규 역, 문예출판사, 서울 2005, 19-48쪽.

8 최승호, 「공장지대」, 시집 『세속 도시의 즐거움』, 세계사, 서울 1991, S. 14.

9 Vgl. T. S. Eliot, Notes toward the Definition of Culture, London: Faber and Faber, 1972, S. 119.

10 Vgl. Ebd., S. 55-58.

11 T. S. Eliot,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80, S. 23-24..

엘리어트의 문화론은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의존적인 연관성에 정신적 기반을 둔다.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문화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엘리어트의 문화론의 핵심이다.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이 그의 문화론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T. S. 엘리어트의 견해에서 나타난 생태주의적 문화론에 비추어볼 때,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화의 ‘세계화’ 과정은 고유한 지역 문화들의 연쇄적 몰락을 불러 일으키고 식민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생태주의 이론가 김종철 교수는 ‘세계화’를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서 ‘세계화’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제화’ 현상은 세계 각 지역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자연스런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다만 지난 수십년간 심화되어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팽창,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통신위성, 정보전달 및 수송체계의 비상한 발달로 인하여 세계적 통상의 기회와 규모와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국제화’는 현대사의 오랜 질곡인 제국주의적 지배와 종속관계의 보다 악화된 형태이다. (중략) ‘국제화’는 지구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파괴하고 -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21세기를 통하여 전세계 언어의 90%가 소멸될 운명이다 - 제3세계의 생존능력을 치명적으로 저하시키고, 지구의 생명부양체계에 막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인류공멸을 앞당기는 파멸의 논리일 뿐이다.¹²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화’ 혹은 ‘세계화’ 현상은 문화 간의 상호의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문화를 상품화하여 비서구 세계에서 자본주의 시장을 확대하고, 제3세계 국가들을 경제적 식민지와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현상이 ‘국제화’의 또다른 얼굴이다.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김종철 교수의 지적처럼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전개되는 경제적 지배와 문화적 지배 현상은 개별 국가들의 문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문화’라는 정신적 네트워크와 ‘생태계’라는 생명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파괴시키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1964년 ‘사회생태주의 social ecology’¹³라는 이론을 처음 제시한 미국의 철학

12 김종철, 『간디의 물레-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녹색평론사, 서울 2005, 91~92쪽.

자 머레이 북친 Murray Bookchin은 “현 시대의 생태문제는 사회문제로부터 파생되었”¹⁴으며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생태문제의 틀과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이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유할 것인가”¹⁵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또 그는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에서 기인”¹⁶하기 때문에 “위계질서와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것이 현재의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¹⁷이라고 말했다. 인권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권력체제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할 때에 비로소 생태계 파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화’라는 이름의 문화적 지배 현상은 ‘인간지배’의 또다른 현상이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리즘은 제3세계에 대한 지배구조와 ‘위계질서’를 고착시키고 문화 간의 상생을 파괴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IFG(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¹⁸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화’는 ‘경제세계화’의 또다른 이름으로서 ‘모든 나라의 경제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경제’ 구조를 통하여 각국의 ‘문화를 동질화’시켜 문화의 상품화와 ‘소비자주의’를 집중적으로 촉진하고 저개발국의 ‘초고속성장을 촉진’하여 이 국가들로부터 ‘무제한적인 환경자원 및 새 시장을 착취’한다. ‘세계화’ 정책은 저개발국들을 대상으로 ‘기업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및 무제한적인 국가간 자본이동’ 시스템을 조성하여 생산체제를 ‘환경과 사회에 해로운 수출지향 생산체제’로 변화시키고 이 국가들의 ‘보건, 사회, 환경프로그램을 해체’시킨다는 것이다.¹⁹ 경제지배 및 문화지배가 생태파괴와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이다.

13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역, 솔, 서울 1997, 9쪽.

14 같은 책, 234쪽.

15 같은 책, 234쪽.

16 같은 책, 244쪽.

17 같은 책, 244쪽.

18 1994년에 출범한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 IFG;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은 ‘세계화’ 현상이 문화, 사회, 정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해왔다. 이 단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요 활동가, 경제 이론가, 학자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IFG는 ‘세계화’를 ‘경제세계화’, ‘기업세계화’, ‘신자유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19 세계화 국제포럼,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이주명 옮김, 서울 2005, 64-65쪽.

III. 문화적 ‘상생’과 다양한 언어교육 간의 상관성

문화적 ‘위계질서’ 또는 문화지배의 또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계화’의 전령(傳令)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어’가 아닐까? 한국에서도 유아기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생활화하는 것이 당연한 교육과정처럼 인정되고 있다. 아직 사고력이 미약하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유아, 유년 시절부터 모국어 교육보다 영어교육에 치중한다면 아이들의 인성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²⁰ 아이들은 모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 역사, 문화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언어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판단능력이 미약한 유소년기의 언어교육에서도 영어에만 전적인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화’에 편승하여 한국 사회에서 영어 일변도의 언어교육이 일으키는 교육적, 문화적 문제점들을 정영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언어교육의 교육학적 의미 고찰은 아예 간과된 채 세계화를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영어의 필요성만 무작정 강조되어 교육은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지역분권화와 세계화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상의 수많은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 즉 다양한 제2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언어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되살려 모국어 및 외국어 교육을 바로잡아나가야 하며 특히 제2외국어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외국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사용 가치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육의 효용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외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²¹

“영어를 잘해야 살아남지.”이같은 표현은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관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표현에서는 문화적 논리와 학문적 논리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언어

20 Vgl. 정시호, 「‘조기 다언어’ 교육 필요하다」, 『주간동아』229호, 2000. 4.13.

21 정영근, 「21세기의 제2외국어 교육정책」, 『교육한글』15호, 2002. 12. 30.

교육과 그 교육적 효과에서 실용성을 배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그러나 자본의 가치와 물질적 가치만이 ‘실용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실용성’에서 문화적 가치를 배제한다면, 언어교육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언어는 곧 상품의 단계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는 언어교육을 통하여 실용성을 충족시키되, 이 실용성의 범주 안에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언어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자산과 함께 지적 자산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는 요인 중에는 문화적 요소 또한 크다. 정시호 교수의 지적처럼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등이 가진 문화적 힘”²²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적 자산이다.

물론, 소설가 복거일씨를 비롯해 ‘영어공용어화’를 주장하는 논객들은 반세기 가 지난 후 영어가 언어시장을 지배하고 잠식하여 수많은 민족어들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²³ 각국의 언어수요자들이 개인적 실리와 국가적 실리를 추구하는 까닭에 민족어, 모어(母語), 제2외국어들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영어를 제1공용어와 국가어로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영어가 단 하나의 국제어로서 세계의 모든 사회들에서 거의 모든 부면들에 쓰일 것이다. 영어의 그런 융성은 민족어들이 설 자리를 좁혀서 민족어들은 점점 활력을 잃고 일상생활에서 내몰릴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족어들이 사라질 것이다.²⁴ (중략) 국제어의 득세와 민족어의 쇠퇴를 가리키는 근본적인 논리는 국제어가 지닌 우세한 망(網) 경제이다. 망 경제는 워낙 강력한 힘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것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 날로 경쟁이 심해지는 세상에서 국제어가 지닌 우세한 망 경제를 무시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경쟁력을 적잖이 잃을 수밖에 없다.²⁵ (중략)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책은 우리의 모국어인 조선어를 버리고 영어를 우리말로 삼는 것이다. 다른 조치들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²⁶

위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영어공용어화’론의 논리는 영어가 갖고 있는 언

22 정시호, 「조기 다언어」 교육 필요하다, 『주간동아』229호, 2000. 4. 13.

23 복거일,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2003, 43-56쪽.

24 같은 책, 50쪽.

25 같은 책, 55-56쪽.

26 같은 책, 89-90쪽.

어 자체의 우월성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적 근거는 시장경제 원칙이다. 그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닥쳐올 개인적 손실과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자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언어의 실용성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본의 척도를 통해서만 언어수요를 측정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영어공용어화’론의 논객들 중에서도 복거일씨처럼 기존의 민족어 또는 모어(母語)를 폐기하고 영어를 국어이자 제1공용어로 삼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²⁷, 기존의 민족어를 국어로 유지하면서도 영어를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제2공용어이자 유일한 외국어로 확립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영어공용어화’론의 두 갈래 주장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언어교육에 있어서 경제주의적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가 득세하는 현상은 제국주의적 침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언어시장(言語市場)에서 유통되는 언어들 중 시장점유율과 교환가치 및 효율이 가장 높은 영어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영어공용어화’론의 핵심적 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에서 나타나는 맹점은 영어를 앞세워 언어시장을 독점하게 만드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언어학자 미우라 노부타카는 ‘포스트식민 시대인 현재’의 시점에서 ‘정치적 강제가 없는데도 어째서 특정한 언어의 사용이 확대되며’ 지배적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토대로 해명하고 있다. 언어를 시장경제의 원칙에만 내맡기는 ‘자유주의’의 이면에 거대 권력의 메커니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언어를 시장의 자유 경쟁에 맡기는 자유주의는 일견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강자의 논리이며, 대언어에 의한 소언어의 도태를 방치하는 것은 언어말살에 대한 방조죄에 해당한다. 언어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어권(言語權)을 인권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법률과 조약에 의해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어는 자연히 죽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아닌, ‘말살’당하는 것이다. (중략) 그람시는 화

27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일언어주의 monolingualism’라고 칭한다.

28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이중언어주의 bilingualism’라고 칭한다. 일본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후나바시 요이치, 스즈키 다카오 등은 영어를 모국어 다음의 제2공용어로 삼자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들이다.

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소언어에서 대언어에로의 이동 뒤편에 익명의 권력 작용이 매개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헤게모니를 ‘시민의 자발적 동의를 조직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한 다음, 이것을 ‘독재’와 구별했다. (제국주의 시대 또는 식민주의 시대엔) 언어제국주의가 정치적 강제를 유력한 수단으로 하여 정책적으로 실행했다고 한다면, 포스트식민 시대의 ‘언어 헤게모니’는, 그 주체도 특정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쪽으로 사람들을 유인한다. 이 가시적인 강제를 동반하지 않는 ‘헤게모니’ 개념이, 오늘의 언어제국주의를 분석하는 데에 대단히 유효하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²⁹

제국의 언어를 국가어로 채택하거나 ‘제1공용어’로 삼는 현상은 제국 언어의 광역 커뮤니케이션 망(網)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국어 화자 자신의 개인적 의지가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자발적 의지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시민의 자발적 의지를 조직하는’ 데에는 그람시가 지정한 ‘권력’의 메커니즘 외에도 화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언어이데올로기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다나카 가쓰히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세계의 언어에는 미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발달이 늦은 언어와 진보한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 <2> 세계의 제 언어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근처에서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주장. <3>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모어를 버리고 보다 훌륭한 언어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³⁰

다나카 가쓰히코의 견해에 따르면, 제국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망(網)에 참여하려는 화자의 자발적 의지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언어진화론과 문명론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언어이데올로기이다. 최상의 문명의 혜택을 보장해주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총체적 의지와 진화에 따른 자연적 선택이라는 논리이다. 이 언어이데올로기는 오늘날 논쟁의 화두가 된 ‘영어공용어화론’에 일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공용어화론’자들의 논

29 미우라 노부타카, 「식민지 시대와 포스트식민지 시대의 언어지배」,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미우라 노부타카. 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이연숙. 고영진. 조태린 옮김), 돌베개, 서울 2003, 13.17.18쪽.

30 다나카 가쓰히코, 「언어와 민족은 분리할 수 있다는, 언어제국주의를 지탱하는 언어 이론」, 같은 책, 61쪽.

리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언어를 민족과 분리시켜 바라본다는 점이다.³¹ 언어를 생성시킨 민족의 특수성과 생물학적 종(種)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이러한 요소와 언어 간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데에서 맹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공용어화’론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맹점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문화적 욕구와 학문적 기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우라 노부타카는 ‘영어공용어화’론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질적 하락과 문화간의 소통 결여 현상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영어를 제2공용어로 특권화한다면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무용하다고 하여 버려지고, 오직 영어력만을 기준으로 국민이 서열화되면서, 효율 만능의 사고가 진척되어, 소수자에 대한 배려 혹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것이 명약관화하다.³²

모국어를 대신하여 영어를 ‘제1공용어’로 삼거나 모국어 다음의 ‘제2공용어’로 삼을 경우, 세계 각국의 문화시장은 영미문화만을 소비하고 유통하는 미국식 글로벌 마케트로 변해갈 것이다.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영어를 무기로 삼아 세계의 문화시장을 점유하고 지배하는 심각한 사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영어를 ‘공용어’로 삼은 댓가로서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지 않겠는가? 다양한 언어교육을 포기한 결과, 문화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영어’라는 단일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미국의 문화 상품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 감수해야만 하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영어’라는 단일한 언어가 세계 각국의 언어를 잠식함으로써 각국의 문화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은 제2의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준다. 로버트 필립슨은 이같은 양상을 ‘영어제국주의’³³라고 규정하였고, 루이 장 칼베, 장 베르나베, 다나카 가쓰히코, 오구마 에이치 등은 이를 ‘언어제국주의’³⁴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비판적 담론은 지역 언어들의 관계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31 다나카 가쓰히코, 같은 책, 65쪽.

32 미우라 노부타카, 같은 책, 13쪽.

33 로버트 필립슨, 「영어 제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같은 책, 123쪽.

34 다나카 가쓰히코, 같은 책, 51-68쪽.

바라보는 ‘언어생태학’³⁵ 또는 ‘생태언어학’³⁶에 기초하고 있다.

IV. ‘생태주의’를 통해 바라본 다양한 언어교육의 필요성

‘생태주의’는 ‘큰 것에 비해 작은 것을 우대하고 힘의 지속적인 팽창이 약한 것의 희생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항하는’³⁷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토대를 두고 있는 ‘생태언어학’ 또는 ‘언어생태학’은 다수 언어 및 대언어의 팽창에 따라 ‘정체되거나 수축되는’ 소수 언어를 보호하고 거대한 단일 언어의 위세로부터 ‘작고 평균적인’ 다양한 언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분야이다.³⁸ ‘언어생태학’이라는 명칭은 1970년 아이나르 호우겐 Einar Haugen의 강연 ‘언어의 생태학 The Ecology of language’에서 유래되어 1972년 그의 논문집에 이 이름을 붙임으로 학술적 명칭이 되었다.³⁹ 호우겐은 “특정 언어와 그의 환경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탐구”라고 ‘언어생태학’을 정의하고 있다.⁴⁰ 이 ‘언어생태학’의 관점에 의해 노먼 데니슨 Norman Denison은 소멸되어 가는 언어들을 소멸의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았다.⁴¹ 호우겐과 데니슨의 ‘생태주의’적 언어관은 소수 언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생태언어학’⁴²은 인간, 언어, 자연 간의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수보다는 소수를 옹호하고, 보호받는 언어보다는 위협받는 언어를 옹호하는 논리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언어생태학’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35 루이-장 칼베, 「모어, 국민어, 국가어 - 언어생태학을 위한 중력모델」, 같은 책, 35, 39, 42쪽.

36 장 베르나베, 「생태언어학과 언어 정책」, 같은 책, 195, 204, 208, 210쪽.

37 Alwin Fill, 『생태 언어학/Ökologlinguistik. Eine Einführung』, 박육현 옮김, 한국문화사, 서울 1999, 12쪽.

38 같은 책, 12 쪽.

39 Einar Haugen, The Ecology of Language. Essays by Einar Hauge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a,b.

40 같은 책, 1972b, 325 쪽.

41 Norman Denison, A Linguistic Ecology of Europe? Folia Linguistica 16/1-4(5-16). Dt(1983).

42 ‘생태언어학 Ökologlinguistik’이라는 명칭은 1985년 Claude Hagege가 처음 사용하였다.

생태언어학은 개인들 사이의, 혹은 화자와 언어집단들 사이의, 혹은 언어와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의 관점을 고려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현상과 관계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나는 분야이다.⁴³

알빈 필 Alwin Fill은 ‘생태언어학’에서 다루는 주제를 “거대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언어⁴⁴에 의한 소수 언어의 억압, 소수 언어의 소외로 인한 언어사회의 통일, 위기에 직면한 언어의 소멸이나 존속 등...”⁴⁵이라고 설명한다. 위협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위기에 처해 있는 소수 언어의 소멸을 막아내는 것도 최소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 장 칼베가 제시한 ‘정치적, 언어적으로 올바른 담론 Politico-linguistiquement correct’은 ‘생태언어학’의 관점에서 소수 언어들을 옹호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모든 언어는 평등하다/ 소수 언어들은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생존을 위협받는 언어들은 고래 새끼나 바다 표범 새끼와 같은 차원에서 인류 유산의 일부 또는 위협받는 종(種)의 하나로 보호되어야 한다./ 언어 사용자는 자신의 제1언어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뿌리와 문화를 잃는 것이다.⁴⁶

현재 영어의 확산 추세는 영어 자체의 언어학적 특질과 장점과는 상관없이 제국의 편에서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언어생태학’ 또는 ‘생태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언어의 생태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언어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모든 정치권력과 언어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이 저항을 개인적 선택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탈식민의 시대에 접어든 후에도 제국을 옹호하는 국제기구들과 제국 정부가 탈식민 국가들의 언어교육에 영향을 끼쳐 영어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수행했던 것⁴⁷처럼, 하나의 언어 또는 제국

43 Alwin Fill, a.a.O., S. 16.

44 본 논문에서는 “다수 언어” 혹은 “대언어” 라고 칭한다.

45 Alwin Fill, a.a.O., S. 21.

46 루이-장 칼베, 「모어. 국민어. 국가어 - 언어생태학을 위한 중력모델」,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41쪽.

47 이 점에 대해 로버트 필립슨은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탈식민 시대인) 현대 사회

언어를 강요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도 정책적 배려에 편승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 국제 연합 같은 국제 기구들, 유럽 연합 EU 같은 지역 연합체 및 초국가적 연합체들은 영어가 다른 언어들을 무시하고 주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되거나 학습되지 않도록 새로운 언어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피교육자인 모든 개인과 집단이 교육과정과 공공부문에서 고유한 민족어나 여러 공용어들 중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적 인권을 존중받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⁴⁸ 이 정책은 제국의 정부, 개별 국가의 정부, 공공기관, 메스미디어 등을 통해 제국 언어 또는 하나의 언어를 강요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권옹호 정책이기도 하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지구어’ 또는 ‘세계어’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명명조차도 언어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의 대다수 주민들이 영어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소수 언어의 화자인 민족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인구수는 영어사용자들의 인구수를 앞지르고 있다. 또한, 영어의 전세계적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고유한 민족

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World Bank은 탈식민지 국가들의 교육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세계 은행이 지역언어들을 지지한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냉전’ 기간 동안 영어는 국제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 조직들의 호위를 받는 미국이 행사하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패권의 완전한 부속물이었다. 냉전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문화적이었으므로 미국인들은 서유럽의 지식인들, 학자들, 일반 대중을 겨냥한 폭넓은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려고 비밀 조직인 중앙정보국(CIA)을 이용하기도 했다. ... ‘철의 장막’이 겹쳐진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영어가 옛 공산국가들에서 상품화되었다. 현재 소비에트 제국의 일부였던 지역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대혼란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영어는 탈공산화된 동유럽의 경제와 시민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눈에 띄게 잘 팔리는 몇 가지 만병통치약에 속했다. 이는 특히 두 명의 영국 외무장관, 더글러스허드와 말콤 리프킨드의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영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약속은 탈식민지 국가들 대부분에서 그렇듯이 공허한 거짓말이었다. 그 나라들에서 영어는 다국적 기업들과 결탁한 부패하고 사리사욕으로 가득찬 정부를 뒷받침했고 그곳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관적 언론인들과 학자들은 흔히 서양으로 망명을 가는 처지가 되곤 했다. 영어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은 다국적 기업들과 세계무역기구 WTO의 지구화 계획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소수의 사람들이 더많은 부를 소유하면서 줄곧 증가하는 전 세계의 주민들에게는 빈곤을 강요한다.”

48 로버트 필립스, 「영어 제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같은 책, 137쪽.

어들의 소멸을 단정하기엔 선부르다. 기원후 이천 년 동안 전세계에 흩어져 살아 왔던 유대인들은 세계의 어느 민족 구성원들보다도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들의 모어(母語)이자 유대 문화의 표상인 히브리어를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에 이주한 멕시코인들과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이면서도 모어(母語) 사용의 전통을 유지해왔다. 소수 언어의 화자들이 영어교육을 수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조상 대대로 가정 안에서 전수받아온 민족어 또는 모어(母語)를 버리기는 불가능하다. 가정은 문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엘리엇(T. S. Eliot)의 주장처럼 문화공동체의 ‘핵’이기도 하다.⁴⁹ 가정은 ‘모어’의 매개 작용을 통하여 문화 유산을 전달하는 최초의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가정의 사회적 기능이 존속하고 민족의 존립이 유지되는 한, 모어의 소멸은 있을 수 없다.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종(種)과 다른 종들 간의 공생(共生)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국어로서의 ‘모어(민족어)’와 복수(複數) 외국어들 간의 공존⁵⁰, 국어 혹은 공용어와 소수 민족어들 간의 공존⁵¹, 스위스⁵²와 캐나다⁵³에서처럼 복수 국어 및 복수 공용어 간의 공존이 있을 뿐이다.⁵⁴

이제는 한국에서도 언어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국 문화의 발전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영어를 포함한 복수의 외국어들을 다양하게 학습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중국어와 일어 등 최근 들어 교육 열기가 높아지는 외국어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지만,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제2외국어의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교육의 비중은 영어교육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왔다. 대표적인 실례로서 한국의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독일어 교사 및 불어 교사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전공 과목을 가르치지 못하고 영어 교사로 이미 변신했거나 변신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인문계 고등

49 Vgl. T. S. Eliot, Notes toward the Definition of Culture, London: Faber and Faber, 1972, 42-43.

50 한국, 일본과 같은 단일민족국가 국민들의 언어사용 시스템

51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 국민들의 언어사용 시스템

52 스위스의 국민어는 4개의 언어(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시어)이다. 이중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로만시어는 공용어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53 캐나다에서는 3개의 언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영어, 프랑스어, 이누이트 언어(최근에 공용어로 인정됨)이다.

54 세 가지 언어사용 시스템 모두 ‘다언어주의 multilingualism’

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위임하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 독일어와 불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1992년 독일어를 선택한 인문고교생의 숫자는 553,269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02년엔 169,339명으로 현저한 하향세를 나타냈다. 불어도 독일어와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1992년 불어를 선택한 인문고교생의 숫자는 293,260명이었지만 2002년엔 108,404명으로 급감하였다. 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서반아어문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독일어 교육의 퇴조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독어독문학과 대학생수는 1987년 16,253명까지 상승한 것을 끝으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4년 학부제가 도입된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대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더니 2002년엔 5,907명으로 하락하였다.⁵⁵ ‘폭락’이란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독일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 교육의 하향 추세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추오 대학의 경우,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한 학생수는 1991년 650명에서 2002년 250명으로 감소하였고, 이 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선택한 학생수도 1993년 2200여명에서 2002년 1300여명으로 무려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⁵⁶

이기식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서 독어독문학 전공과 제2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선택하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주된 원인들을 진단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독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직업 선택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독일의 위상이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현격히 후퇴하고,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영어가 세계 공통어로서의 자리를 굳히면서 독어는 불어와 더불어 소수 민족어로 전락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⁷ 한국에서 독어, 불어, 노어, 서반어 등 제2외국어 교육의 퇴조 현상을 부추기는 또 한가지의 원인은 문화와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실용성과 효율성의 원칙에만 편승하여 외국어 교육을 영어교육 쪽으로만 편향시키는 획일적 교육제도의 존속과 제2외국어 교육정책의 부재에 있다. 물론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55 이기식, 「한. 미. 일의 독어 및 독문학 침체의 원인과 대책」, 『시간의 카오스』, 이정길외 지음, 자연사랑, 서울 2004, 251-252쪽.

56 이기식, 같은 책, 246-248쪽.

57 이기식, 같은 책, 257쪽.

추세이지만 이러한 선택조차도 학문적, 문화적 고려에서 기인하는 현상이 아니라 졸업 이후의 진로와 취업에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기 위한 학문외적, 문화외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언어의 교육과 학습을 선택하는 조건이 오로지 경제와 실용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미국의 ‘세계화’ 정책과 더불어 시작된 영어교육의 전세계적 확산을 비판적 성찰없이 수용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의 부재도 톡톡히 한 몫을 한 셈이다.

제2외국어교육에 대한 담론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외국어교육의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기존의 ‘교육공학’적 담론 및 ‘교육경제주의’적 담론과 함께 ‘문화정책’적 담론을 생산해야 한다. 담론의 생산 출구를 다양하게 개방해야 한다.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이 ‘경제주의’ 또는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2외국어교육에 대한 담론마저도 ‘경제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2외국어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논의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자칫하면 집단이기주의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상호주의’라는 ‘세계화’의 진정성에 호소하면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필연적 상관성을 부각시키는 ‘문화정책’적 방향에서 담론을 전개할 때,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제2외국어교육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즉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2외국어교육 담론을 생산할 때, ‘집단이기주의’의 의혹을 벗어나면서도 언어수요자의 실용적 효율성, 문화향유자의 지적(知的) 욕구, 언어교육자의 생존적 기반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문화상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제2외국어 교육의 역할과 기능

제2외국어 교육의 비중을 영어교육의 비중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각 나라의 문화를 다양하게 수용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자국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편식하지 말고 개별 지역들, 개별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들을 균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각 지역

문화들을 상호 비교·검증하면서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정서적 조건에 맞게끔 각 지역문화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국문화의 우수한 정신적 자원들을 다양한 문화권(文化圈)에 전해줘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상호작용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국문화의 발전은 물론이요, 각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생태주의’에서 자연과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의존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듯이, 개별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타문화의 장점과 정신적 가치를 자문화의 영역 속으로 흡수하여 자문화의 결핍을 보완하는 문화적 상호의존의 관계를 창출해나가야 한다. 문화간의 상호의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 문화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해지고, 머레이 북친의 말처럼 문화간의 ‘위계질서와 지배구조’가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각 개별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평등한 ‘문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문화 간의 다양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문화적 소통과 상호의존의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은 언어교육이다. 문화를 수용하고 전달하는 매체는 언어이며, 언어는 문화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교육에 치중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영어교육만을 강조하며 모국어 교육과 제2외국어 교육을 소홀히 하는 한국의 언어교육 풍토는 자국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 송충식 논설위원은 언어교육의 편향성에 기인하는 문화편식주의가 자국문화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반 세기 전만 해도 ‘약소국의 언어’였던 한국어가 지금은 사용인구면에서 세계 12위에 올랐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일본에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크게 늘어나 중국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고 한다. 제2외국어 교육은 언어와 문화의 편식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잉글리쉬 온리’ 풍조의 확산과 함께 제2외국어 교육을 경시하려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대 추세에 맞지 않다. ‘영어는 기본’이라 해도, 다양한 제2외국어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립주의를 자초할 위험이 크다. 중국 일본도의 언어문화 때문에 서구의 충격에 적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새겨볼 일이다.⁵⁸

58 송충식, 「제2외국어」, 『경향신문』, 2005. 1.10.

유소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문화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각 문화에 대한 감식능력을 기르는 것이 지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일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교육하는 일이야말로 청소년기에 국가, 민족, 인종, 언어,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한 문화의 지배를 받는 문화적 식민지의 구성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화적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극복하고, 문화 간의 소통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미래 세대는 모국어 교육, 영어 교육, 제2외국어 교육을 균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⁵⁹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 학습에만 치중하면서 모국어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모국 문화의 장점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될 것이다. 또한, 영어 이외의 타지역 언어 - 독어, 불어, 노어, 스페인, 일어, 중어 및 제3세계 언어 -를 다양하게 학습하는 교육 풍토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영미문화의 영향만을 받아들이고 유럽 각 지역의 문화와 제3세계의 문화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를 바라보는 자국민의 시각이 획일화되고 편협해질 뿐만 아니라 영미문화만을 편식하게 되어 모국 문화가 영미 문화에 예속, 흡수, 통합,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로 하여금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케 하려면, 영미권(英美圈)외의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제2외국어 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문화의 상호 교류 및 소통에 기여하는 지성인으로 키워내고, 우리 문화의 발전을 모색하는 주체로 성장시키려면 지금까지 소외돼왔던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⁶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영어 교육이 모국어 교육과 다른 지역의 언어에 대한 교육을 잠식한다면 타지역 언어의 발전과 타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결국은 영어의 학문적 발전과 ‘영미 문화’ 또는 ‘미국 문화’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것은 영어와 ‘미국 문화’에 길들여진 타지역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일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의 편협성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미국 문화’를 퇴보시키는 역기

59 Vgl. 조희한, 「전문지식 없으면 꼰병어리가 된다 - 외국어 교육의 개선 문제」, 『교수신문』, 2005년 2월 26일.

60 Vgl. Rolf Schwendter, Theorie der Subkultur, Köln/Berlin 1971, S. 1-8.

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고유한 문화를 고수하면서도 타지역 문화와의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로의 발전적인 통합과 분할의 과정을 겪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생태적 법칙이기도 하다. 이때 문화 간의 교류, 소통, 통합, 다양한 분할을 위해서는 직관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타지역 문화를 대변하는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일, 즉 제2외국어 교육은 문화 교류와 수용에 필요한 감수성과 통찰력을 기르는데 지름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⁶¹

VI. 맺는말 - 문화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위하여

'세계화'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한 문화권에 편중된 획일적인 문화수용과 그로 인한 사고의 획일화이다. 그것은 '문화제국주의'의 얼굴일 수도 있고, '문화 생태계'의 파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문화간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다양한 제2외국어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고 수용하는 일은 '문화제국주의'를 방어할 수 있고 문화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제2외국어 교육의 역할은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과 상생(相生)을 통한 각 지역문화들 간의 소통의 출구를 개방하는 데 있다. 자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2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제2외국어 교육의 비중을 영어교육의 비중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때에 다양한 문화의 수입, 문화 간의 상호 비교, 검증, 교류, 문화 간의 상호 보완 및 비판적 수용의 발전 단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발전 과정의 전제조건은 문화의 다양성과 개별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서 생태계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지역의 문화권(文化圈)은 다른 지역의 언어를 통해 그 지역 문화권의 정신적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자생적 토양에서 자라난 고유한 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모국어를 통해 다른 지역의 문화권에 공급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 간의

61 Vgl. Ebd., S. 12.

소통 및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문화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해 보다 나은 문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⁶²

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는 각 지역문화들이 강대국 중심의 국가 문화 또는 거대 문화에 흡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다. 모국어 교육과 함께 제2외국어 교육의 비중이 영어 교육의 비중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승할 때에 독자적인 고유 문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타지역 문화들과의 공존 및 생산적 융화를 가능케 하여 한국의 문화공동체를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진정한 문화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문화들 간의 상생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문화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현을 위해서도 제2외국어 교육의 다양성은 절실히 필요하다.⁶³

참고문헌

- Amery, Carl: ELF Thesen zum ökologischen Materialismus. In: Tintenfisch 12. Thema Natur. Hrsg. v. Hans Christoph Buch. Berlin 1977.
- Ammon, Ulrich: Deutsche Sprache international, Heidelberg 1999.
- Burns, Rob: German Cultural Studies, London, 1995.
- Denison, Norman: A Linguistic Ecology of Europe? Folia Linguistica 16/1-4(5-16). Dt(1983).
- Eliot, T. S.: Notes toward the Definition of Culture. London: Faber and Faber. 1972.
- Fill, Alwin: 『생태 언어학/Ökolog linguistik. Eine Einführung』(박옥현 옮김). 한국문화사. 서울 1999.
- Haugen, Einar: The Ecology of Language, Essays by Einar Hauge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a,b.
- Metzner, Ralf: Die Entfaltung des ökologischen Weltbildes. In: Tiefenökologie. Hrsg. v. Franz-Theo Gottwald u. Andrea Klepsch. München 1995.

62 Vgl. 크리스 젠크스, 『문화란 무엇인가』, 김윤용 옮김, 현대미학사, 서울 1996, 157-180쪽.

63 Vgl. 김승룡. 김종현, 『문화이론과 문화읽기』, 서광사, 서울 2001, 59-62쪽.

Schwendter, Rolf: Theorie der Subkultur. Köln/Berlin 1971.

Williams, Raymond: Culture. London, 1981.

구승희: 『에코필로소피』. 새길. 서울 1995.

김승룡, 김종현: 『문화이론과 문화읽기』. 서광사. 서울 2001.

김종철: 『간디의 물레-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녹색평론사. 서울 2005.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역. 솔. 서울 1997.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서울 1999.

미우라 노부타카. 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이연숙. 고영진. 조태린 옮김: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서울 2003.

복거일: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2003.

세계화 국제포럼: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이주명 옮김. 서울 2005.

송용구: 『생태시와 저항의식』. 다온샘. 서울 2001.

송용구: 『현대시와 생태주의』. 새미. 서울 2002.

송충식: 『제2외국어』. 《경향신문》. 2005. 1.10.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박홍규 역. 문예출판사. 서울 2005.

이기식: 「한. 미. 일의 독어 및 독문학 침체의 원인과 대책」. 「시간의 카오스」. 이정길 외 지음. 자연사랑. 서울 2004.

정시호: 「‘조기 다언어’ 교육 필요하다」. 《주간동아》 229호. 2000. 4.13.

정영근: 「21세기의 제2외국어 교육정책」. 《교육한글》 15호. 2002. 12. 30.

조희한: 「전문지식 없으면 꼴병어리가 된다 - 외국어 교육의 개선 문제」. 《교수신문》. 2005년 2월 26일.

크리스 젠크스: 『문화란 무엇인가』. 김윤용 옮김. 현대미학사. 서울 1996.

최승호: 『세속 도시의 즐거움』. 세계사. 서울 1991.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칙』. 이진우 옮김. 서광사. 서울 1994.

Zusammenfassung

Das kulturelle interdependente Verhältnis und die zweite Fremdsprache in Anlehnung an ökologischem Diskurs

Song, Yong Ku (Korea Uni)

Im vorliegenden soll die Erscheinungslogik der einzelnen Kulturen mit Rekurs auf den Begriff 'Interdependente Zusammenhänge' untersucht werden, wobei sich die Funktionsähnlichkeit zwischen Kultur und Ökologie auf der Ebene des Organismus theoretisch verdeutlichen lässt. In Anbetracht heutiger ökologi -

scher Denkansätze ist zu überprüfen, welcher Stellenwert dem verschiedenen Kulturspektrum zukommt. Dabei ermöglicht der Begriff der Interdependenz es, die jeweilige interkulturelle Episteme auf die Metapher ökologischer Interaktion zurückzuführen.

Was das ökologische Prinzip angeht, existieren alle Spezies von der Naturbereiche durchaus nach dem interdependenten Mechanismus miteinander, nämlich nach der organischen Wechselbeziehungen. Diese Struktur würde, wenn man so will, dem Vorgang der Kultur entsprechen. Das kulturelle Netzwerk beruhen, genauso wie das ökologische Netzwerk in Natur, auf die organische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Dabei geht es der Entwicklung einer Landeskultur darum, in diesem organischen kulturellen Netzwerk interkulturelle Wechselbeziehungen fortzubestehen. Vor diesem Hintergrund ist es nachzuvollziehen, dass das ökologische Konzept der kulturellen Interdependenz als eine bedeutende Antwort fungiert, die sich auf die Herausforderung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vorbereitet. Bei der kulturellen Interdependenz oder der interkulturellen Kommunikation geht es darum, die viele verschiedene Fremdsprachen, z.B. Englisch, Deutsch, Französisch, Chinesisch, Japanisch, Sp-

anisch, Russisch, usw. an Universitäten oder in Hochschulen gleichwertig zu lernen. Als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kann das Bestreben bezeichnet werden, das Lernen verschiedener Fremdsprachen weiterzuentwickeln. Im Hinblick auf die kulturelle Interdependenz ode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kann der Multifremdsprachenunterricht in Korea eine wichtige Rolle in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spielen.

검색어: 생태주의, 문화, 문화적 상호의존, 다양한 외국어 교육

Stichwörter: Ökologie, Kultur, kulturelle Interdependenz, Multifremdsprachenunterricht.

필자 E-mail: syk659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06. 10. 17, 논문심사일: 2006. 11. 12, 게재확정일: 2006. 12. 04.